

사립 신규교사 채용 투명성 강화

전북교육청·사립중·고교법인협의회 채용계획 공고 20개과목 103명 선발... 28일~내년 1월4일까지 접수

도교육청과 전북 사립중·고등학교 법인협의회는 '2021학년도 전라북도 사립중·고등학교 신규교사채용' 시행계획을 공고했다. 지난 4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내년 공개장형에 참여하

는 사립법인은 29개 학원에 39개 학교로, 20개 과목에서 103명을 선발할 예정이다. 가장 많은 인원을 선발하는 과목은 영어와 국어로, 영어는 14개 학교에서 국어는 12개 학교에서 각각

15명을 채용한다. 또 수학은 10개 학교에서 10명, 체육은 8개 학교에서 8명을 선발할 예정이다. 원서접수 기간은 오는 28일부터 2021년 1월 4일까지며, 1차 필기시험은 1월 16일 치러질 예정이다. 시험장소는 원서접수 후 해당학교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하며, 별도의 장소에서 전체 학교법인이 통합해 실시하게 된다. 특히 지난해부터 도교육청이 추천하

는 공립학교 교사가 시험감독관으로 50% 이상 참여하도록 하고 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전북교육청은 사립학교 신규교사 채용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 지난 2013년부터 법인간 공동전형을 실시하고 있다"면서 "사립학교 채용비리를 예방하고 투명한 교육행정이 정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은성기자



학생 참여 프로그램으로 운영된 캡스톤디자인 경진대회에서 전북대 'everybody'팀의 '독거노인을 위한 스마트 디바이스'가 우수상을 받았다

전북대 GTEP 사업단 전자상거래 대회 우수상

전북대학교 지역특화청년무역전문가양성사업단(단장 김민호, 이하 GTEP사업단) 학생들이 전자상거래 대회에서 우수상을 수상했다고 지난 4일 전했다. 학생들은 최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제14기 GTEP 전자상거래 경진대회'에서 우수상과 특선을 받았다. 이번 대회는 전국 19개 대학 68개 팀이 참가했다. 이중 전북대를 포함한 총 15개 팀이 최종 본선에 진출, 각 팀은 본선에서 우수 중소기업 제품을 글로벌 전자상거래 플랫폼에 등록하고 마케팅 전략 수립 및 판매 과정 등을 발표했다. 우수상을 수상한 BeLight 팀(경영학과 차현, 무역학과 문지혜·방지은·천지성, 영어영문학과 방다혜)은 전주 소재 한복 업체 '리슬'의 한복과 전통 장신구 등의 아이템을 글로벌 전자상거래 플랫폼인 엠티와 아마존에 입점시켜 판매했다. 해외 소비자들에게 다소 생소할 수 있는 상품들을 판매하기 위해 한류 연계 마케팅, 적극적인 SNS 홍보, 플랫폼 안정화 등 다양한 작업을 진행했고, 6개월 간 약 5,500달러의 판매 성과를 거뒀다. 특선을 수상한 'GTEP-UP' 팀(무역학과 오혜성·김정은·김주환·양시은·전예림·정유빈)은 전주시에 위치한 '썬에어랩'의 '노즈클립'과 '코잡잡' 아이템을 아마존에 입점시켜 각종 지원사업을 통해 해당 업체가 전자상거래의 물꼬를 틀 수 있도록 지원했다. 한편, 지역특화청년무역전문가양성사업단(이하 GTEP)은 무역 이론교육과 현장실습을 통해 무역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있으며,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무역협회가 전국 20여개 대학을 선정해 지원하는 사업이다. /정은성기자



전북대학교 지역특화청년무역전문가양성사업단 단장 김민호, 이하 GTEP사업단 학생들이 전자상거래 대회에서 우수상을 수상했다

전주대 출신 소영민 장군, 육군 중장 진급

전주대학교 84학번 소영민 장군(학사 11기)이 육군 중장으로 진급했다고 밝혔다. 지난 4일 전주대에 따르면 소영민 동문이 국방부 2020년 하반기 장성급 장교 인사명령에 의해 육군 특수전사령관(중장)으로 임명됐다. 학사 출신 장군으로는 첫 번째 특수전사령관 발탁이며, 중장 진급은 역대 2번째다. 소영민 중장은 1988년 육군 소위에 임관해 6·8학번 19연대장 육군본부 인력획득과장, 육군본부 제대군인지원처장을 역임하고 현재 31사단장 직을 수행하고 있다. 2019년 전주대 자랑스러운 동문으로 선정돼 수퍼스타관에 이름을 올렸다

한편 전주대 수퍼스타관에는 배우 김우빈 등 2명의 동문의 사진과 자필 서명이 전시돼 있다. /정은성 기자

러산 논쟁 - 내수사의 산발적 택전유와 그 비판이란 주제로 발제하고, 이 정철 경북대 교수가 토론을 담당한다. 제2발표는 휘강(중국 화동사범대) 교수가 새로운 맥락 속의 소농경제에 대한 재이해를 발제하고, 토론은 김명희 전주대 교수가 맡았다. 스텐타오(대만 국립대) 교수는 제3발표에서 '박문호의 시 교육 사상'을 발표하고, 김건우 전주대 교수가 토론을 진행한다. 제4발표에서는 가스라지마 노부히로(일본 리쓰메이칸대) 교수가 '도쿠가와시대 후기의 유교와 일본근대'를 발표하고, 장순순 전주대 교수가 토론을 맡았다. 마지막으로 김윤희 전주대 교수가 제5발표에서 '국민경제와 유교윤리, 민족경제담론의 계보학적 탐색'을 발표하고, 송규진 고려대 교수가 토론을 담당한다. /정은성 기자

전주대 HK+연구단 학술대회

전주대 한국고전학연구소 HK+연구단(단장 변주승)은 오는 8일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학술대회는 HK+연구단의 3년 차 연구 추진 방향인 '공유 물질생태-지식 생산 나눔'과 관련한 연구 결과물을 한국, 중국, 일본, 대만의 학자들과 함께 공유하는 자리다. 변주승 단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김동희 교수의 사회로 총 5개 주제의 발표와 토론이 진행된다. 제1발표에서 오형녕 전주대 교수가 '조선시대 공유지를 불

전북대 학생들 산학협력 EXPO 잇단 수상

캡스톤디자인 경진대회 등

전북대학교 학생들이 산학협력 EXPO 캡스톤디자인 경진대회 및 산학협력 교육과정 영상콘텐츠 공모전에서 우수상과 장려상을 수상했다고 지난 4일 전했다. 산학협력 EXPO는 산학협력 성과 공유와 발전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목적으로 매년 개최하는 전국 대학 및 기관에서 운영하는 산학협력 성과를 총괄하는 행사다. 학생 참여 프로그램으로 운영된 캡스톤디자인 경진대회에서는 전북대 'everybody'팀의 '독거노인을 위한 스마트 디바이스'가 우수상을 받았다. everybody 팀은 생물환경화학

과 주리아 학생이 팀을 꾸렸다. 이들은 독거노인을 위한 스마트 디바이스는 독거노인의 거주 공간에 냉장고 수도 가스 등에 스마트 디바이스를 부착해 사용자의 작동 패턴을 파악, 위험 여부를 보호자나 관계 기관에 미리 알릴 수 있게 하는 장치로 전문가 비대면 심사를 거쳐 우수상에 선정됐다. 산학협력 교육과정 영상콘텐츠 공모전에서는 기계공학과 4학년 김도원 학생의 '캡스톤, 내가 날 바꿨어'가 장려상을 수상했다. 김도원 학생은 '캡스톤, 내가 날 바꿨어'를 주제로 올해 1학기에 수행한 캡스톤디자인 교육과정을 이수한 경험과 이를 통해 전공과 산학협력에 대해 달라진 인식이 관련 내용을 담은 영상 콘텐츠를 출품했다. /정은성기자

익산 용산초, 창의형 모델학교로

도시형어울림학교 선정

익산 용산초등학교(교장 이연용)는 가운초등학교와 공동통학구 도시형 어울림학교로 선정, 자연과 상생하며 미래를 설계하는 창의형 모델학교로 새로운 도약을 나섰다. 2021학년도에 용산초등학교는 꿈너머꿈을 향해, 놀이가 공부다 공감의 달인 환경 파수꾼 등 4가지 테마로 특색 있는 교육과정을 운영한다. 더불어 도시형 어울림학교를 운영하게 되면서 도심지 학교의 밀집도를 해소하고 초록숲 자연과 함께 진행되는 다양한 생태교육과 녹색환경교육, 교실 밖 아톰더 교육 실현을 통해 나와 너 우리가 함께 생각하며 함께 성장하는 상

생(win-win)의 가치를 구현하고자 한다. 현재 용산초등학교 학생들은 코로나 시대에 불구하고 매일 등교하며 배움이 즐거운 학교생활을 만끽하고 있다. 또한 교육활동비 전액 무료, 세계와 소통하는 주5일 방과후 영어교육, 방학 중 온종일 돌봄 운영 등으로 교육 수요자 모두가 만족하는 행복을 창출하고 있다. 한편 용산초 교육공동체는 ▲Why? 왜 가르치는가? ▲What?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 ▲How?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를 협의하고 방안을 모색하면서 미래를 주도할 학생들의 성장을 돕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정은성기자

코로나19 이겨낼 수 있습니다

전주매일 캠페인

건강한 시민이 할 수 있는

감염병 예방법 두가지

손씻기

마스크착용

일반시민이라면?

1. 흐르는 물에 비누로 손씻기
2. 기침할 때 입과 코 가리기
3. 씻지 않은 손으로 눈과 코, 입 만지지 않기
4. 의료기관 방문할 땐 마스크 착용
5. 사람 많은 곳 방문 자제
6. 발열과 호흡기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 피하기

증상이 있으시다면?

1. 등교, 출근 하지마시고 외출 자제
2. 집에서 충분한 휴식과 함께 3~4일 경과 관찰
3. 38도 이상 고열이 지속되거나 증상이 심해지면 1339로 문의, 또는 선별진료소 우선 방문
4. 의료기관 방문할 땐 자기 차량 이용하고 마스크 착용
5. 진료의료진에게 호흡기 증상자와 접촉 여부 알림

자료: 질병관리청